

남원시, 내년 국비 1조 1802억원 확보

올해 대비 147억원 증가…총 사업비 1조 5656억원 규모
경찰수련원 건립·KTX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 투입

남원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전에서 국비 180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시가 중점 확보 대상으로 관리해 온 186개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으로 올해 대비 147억 원(8.9%) 증가한 실적이다. 총사업비로는 1조 5656억원 규모에 달한다.

시는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올해에만 68개 사업에 선정, 총 169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하며 핵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주요 신규사업은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42억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0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의 경우 도자전시관(170억원) 예산 확보가 대표적이다. 공공 인프라 확충과 청년 인구 유입, 첨단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등 지역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가 나온다. 또 ▲KTX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국비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37억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3년 연속 선정 등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옻칠목공예관 건립(152억원)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58억원) ▲

만인공원 조성사업(304억원) 등이,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원) ▲농촌지도기반 조성(31억원) ▲바이오가스 활용 미꾸리 양식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15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교육·정주여건 분야에서도 ▲공공보건의료대학(632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조성(490억원) ▲도시비탈길숲 조성사업(200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683억원) 등 꾸준한 사업들이 반영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남원만의 특색과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연계한 전략사업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수박연합회, 명품 수박 주산지 인증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장관상
GAP·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획득

고창군수박연합회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진>

이번 평가는 농진청과 외부 농업전문가, 국민심사위원 평가단의 심사 등 1·2차 심사를 거쳤다.

연합회는 고창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해 2020년 7개 작목반이 통합 구성됐다. 현재 257명의 회원이 331㏊의 경작지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까지 획득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힘입어 지난해 9월에는 고창수박이 자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에 지정되기도 했다.

고창수박 명품화를 위한 추진 전략이 수립됐고 이에 따라 올해 5월과 6월에는 신세계백화점과 협



대백화점, 고창마켓 등에서 5000명이가 한정판매된 바 있다.

특히 올해 첫 출하기념으로 진행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경매행사에서는 고창수박 1덩이가 500만원에 낙찰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고창군 관계자는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

산단지에 고창군수박연합회가 선정돼 다시 한번 수박 주산지로서 명성을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라

며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고창수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민원·국민신문고 응대 우수공무원 표창

고창군, 10명 선정

고창군이 하반기 민원·국민신문고 응대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했다.

고창군은 2025년 하반기 민원·국민신문고 응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식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5명씩을 선정해 표장을 수여했다.

‘국민신문고’ 분야는 민원처리 전수, 담당자의 민원요지 파악, 성실한 답변 등을 평가했다.

수상자는 ▲서민지 주무관(도시디자인과) ▲김민경 주무관(환경위생과) ▲고민성 주무관(사회복지과) ▲박재규 주무관(종합민원과) ▲유혜령 주무관(문화예술과)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법정 민원에 대해 단축 일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했다.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남예원 주무관(사회복지과) ▲이민해 주무관(환경위생과) ▲송서경 주무관(신활력 경제정책관) ▲전필규 주무관(사회복지과) ▲배재영 주무관(해양수산과)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시상식 이후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견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와 민원 실적은 단순한 처리 전수를 넘어 국민의 불편 해소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의 중요한 지표다”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 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홈피, 웹 접근성 ‘우수사례’ 선정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체계적 구성·전자 점자 등 만족도 높아

남원시는 시 홈페이지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2년 연속 자체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22회를 맞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장이다.

남원시정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웹 환경을 고려해 체계적인 구성과 명확한 구획정리로 딱딱한 분야의 웹사이트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어 문자 알림, 전자 점자, 모바일 음성인식 검색 등 다양한 기능성 서비스 지원과 매끄럽고 빠른 응답속도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 높이 평가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및 인공지능시대에 맞춰 누리집 기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

으로도 ‘피어나다 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보 접근성 및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빗틈 없이 운영함은 물론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WA
WEB AWARD
25 NOMINEE

으로도 ‘피어나다 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보 접근성 및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빗틈 없이 운영함은 물론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보장

내년부터 ‘11개월 조개기’ 전격 폐지…근로자 권리보호

정읍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 계약 ‘11개월 조개기’를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이제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 조치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돋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관행이었다.

이런 고용 방식에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

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시의 이번 조치로 당장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숨련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로 공공 서비스의 신뢰와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계약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병행해 행정의 효율성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하수 정읍시장은 “근무기간 조정은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준에 맞춰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관행이었다.

이런 고용 방식에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

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에 도입된 전기저상버스는 출입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어 교통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9년 처음으로 전기저상버스 1대를 도입했다. 이어 2023년에 2대를 추가해 총 3대를 운행해 왔다. 올해 7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총 10대의 전기저상버스가 정읍 시내 곳곳을 운행하게 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확대

전기저상버스 7대 도입해 총 10대…오염 물질 배출·소음·진동 ↓

정읍시가 대중교통 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 한다.

정읍시는 자령 만료 경유 버스 7대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 총 10대의 친환경 버스가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는 최대 11년까지 운행 가능하다. 기한이 도래하면 신차로 교체(대폐차)해야 한다.

시는 이 시기에 맞춰 노후 경유 버스를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 소음·진동이 적은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확대하는 물론 시민들에게 편리한 승차감

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도입된 전기저상버스는 출입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어 교통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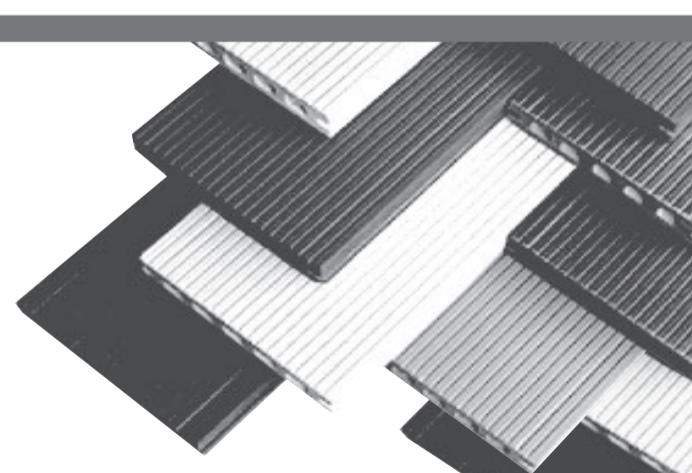
시는 2019년 처음으로 전기저상버스 1대를 도입했다. 이어 2023년에 2대를 추가해 총 3대를 운행해 왔다. 올해 7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총 10대의 전기저상버스가 정읍 시내 곳곳을 운행하게 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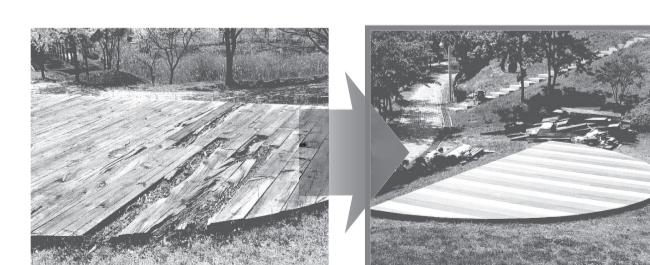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